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모투자신탁(카디안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중국 상해 또는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 Share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모투자신탁(카디안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에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에의 투자는 국공채 등의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 주식에의 투자는 A Share 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 가운데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와 성장성을 지닌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한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30,894원

-채권모투자신탁 998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1,101억 원

펀드유형

채권혼합형, 모자형, 종류형

- 채권모투자신탁 편입비: 60% 이상
- 주식모투자신탁 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16년 05월 09일)

- 클래스 A : 2016년 05월 09일

- 클래스 C : 2016년 05월 09일

벤치마크

CSI300 in KRW(T-1) 28%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2% + KAP Call 1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5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6영업일

투자위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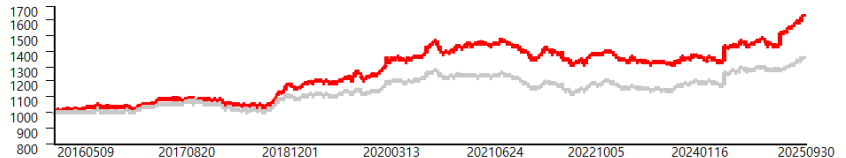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2.14%	7.87%	11.03%	18.23%	22.47%	20.90%	22.25%	63.64%
클래스 A	2.14%	7.87%	11.03%	18.24%	22.48%	20.91%	21.16%	56.16%
클래스 C	2.14%	7.87%	11.01%	18.21%	22.45%	20.88%	21.05%	53.86%
벤치마크	1.19%	6.37%	4.98%	11.33%	17.77%	18.34%	13.86%	36.15%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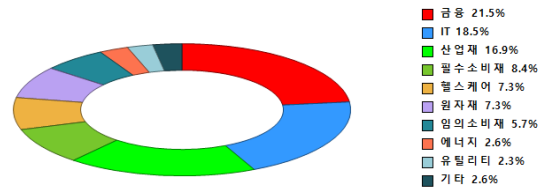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9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주식모투자신탁 편입 비중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9월말 기준, 주식모투자신탁 주식비중)

종목명	국가	섹터	비중(%)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	중국	산업재	4.1
Kweichow Moutai Co Ltd	중국	필수소비재	3.6
Luxshare Precision Industry Co Ltd	중국	IT	3.1
China Merchants Bank Co Ltd	중국	금융	3.0
Ping An Insurance Group Co of China Ltd	중국	금융	2.7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Ltd	중국	금융	2.7
Zijin Mining Group Co Ltd	중국	원자재	2.5
Huatai Securities Co Ltd	중국	금융	2.3
WuXi AppTec Co Ltd	중국	헬스케어	1.9
GigaDevice Semiconductor Inc	중국	IT	1.7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0075% (판매 0.5%)

- 클래스 C : 총 연 1.4075% (판매 0.9%)

(공통사항)

운용 0.45%, 신탁 0.04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클래스A : 납입금액의 0.7% 이내

클래스C :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9월 중국 A Share시장은 CSI300 Index(CNY) 기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업종별로는 산업재, IT 업종 순으로 강세를 보였고, 금융 업종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는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였습니다. 8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1~8월 누적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였지만 전월과 시장 전망치를 모두 하회하였습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 부동산 활동은 부진하였지만 국유기업 중심의 인프라 및 하이테크 투자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펀드에서는 종목선택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산업재 업종에서의 종목선택이 펀드 성과에 가장 기여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재량소비재에서의 종목선택과 금융업종에서의 종목선택과 낮은 비중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현금보유분과 통신서비스에서의 종목선택과 비교지수대비 낮은 편입비중은 펀드 성과를 상쇄하였습니다.

지난 8월 금통위 소수의견 등장과 포워드 가이드스를 고려할 때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다만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계심이 확인되었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안정 우려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미 관세 후속 협상이 지연된 가운데 3,500억달러 대규모 직접투자 우려가 반영되며 원/달러 환율이 재차 1,400원 선에 도달하였습니다. 원화 약세 지속은 통화정책 완화 결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인하가 없을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수출 둔화, 부동산 가격 안정의 지속성, 환율 변동성 축소 등이 확인될 경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는 제한적 하락세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하단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히 높은 만큼 추석 이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 한국은행은 정책 공조 차원에서 11월까지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경우 금리 인하 사이클 중반부 인식이 강화되며 국고 3년물 금리 하단은 2.40% 수준에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한국은행의 다음 인하 예상 시점과 잔여 인하 횟수에 주목하며 금리 수준을 형성해 나갈 전망입니다. 아울러 월중에는 ① 미 관세발 인플레이션 부담과 고용 둔화에 따른 연준 연속 인하 가능성, ② 연준 독립성 이슈, ③ 글로벌 재정 리스크, ④ 국내 확장 재정에 따른 수급 부담, ⑤ WGBI 편입 확정 여부, ⑥ APEC 회의에서의 대미 관세 협상 결과 등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10월 중 국고채 금리는 3년물 2.35~2.65%, 10년물 2.75~3.05%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펀드매니저는 시장 전체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혁신적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자산(예: 혁신 신약, 로봇 등)과 안정적인 펀더멘털 및 저평가된 자산(예: 소비전자, 반도체 장비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정책적 뒷받침과 산업 혁신이 맞물린 중요한 전환기에 있으며,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와 추가 인하 기대는 유동성 완화에 대한 전망을 높이며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3분기 GDP가 5.0% 증가하고, 첨단 산업이 강세를 보이며, 20차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15차 5개년 계획' 관련 정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간 견제와 협상이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내년 실적 기대를 반영한 전략적 포지셔닝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양질의 선도 기업 발굴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산업에 대하여 상향식 전략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대내 확장 재정 기조에 따른 공급 부담과 기재부의 10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초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 결정은 커브 스티프닝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 최근 원화 약세 재개와 서울지역 부동산시장 과열 지속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 축소, 그리고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결정으로 인한 선제적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은 커브 플래트닝 요인으로 기능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커브는 스티프닝 압력과 플래트닝 요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정책, 수급, 대외 변동성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레딧은 스프레드 축소세 지속에 따른 가격 부담 누적으로 추가 축소 여력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다만 양호한 캐리 투자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스프레드의 하단을 지지할 전망입니다. 연말 복귀 로징에 따른 계절적 수급 요인과 함께 향후 한국은행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인하 사이클 후반부 인식이 강화될 경우 스프레드는 점차 확대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10월 주요 크레딧 스프레드는 특수/국고 3년물 15~20bp, 은행/국고 3년물 18~23bp, 회사AA-/국고 3년물 40~45bp, 여전AA-/국고 3년물 40~45bp 수준 등락을 예상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